

# j.j.magazine

*Re* +  
**ORIGINALS**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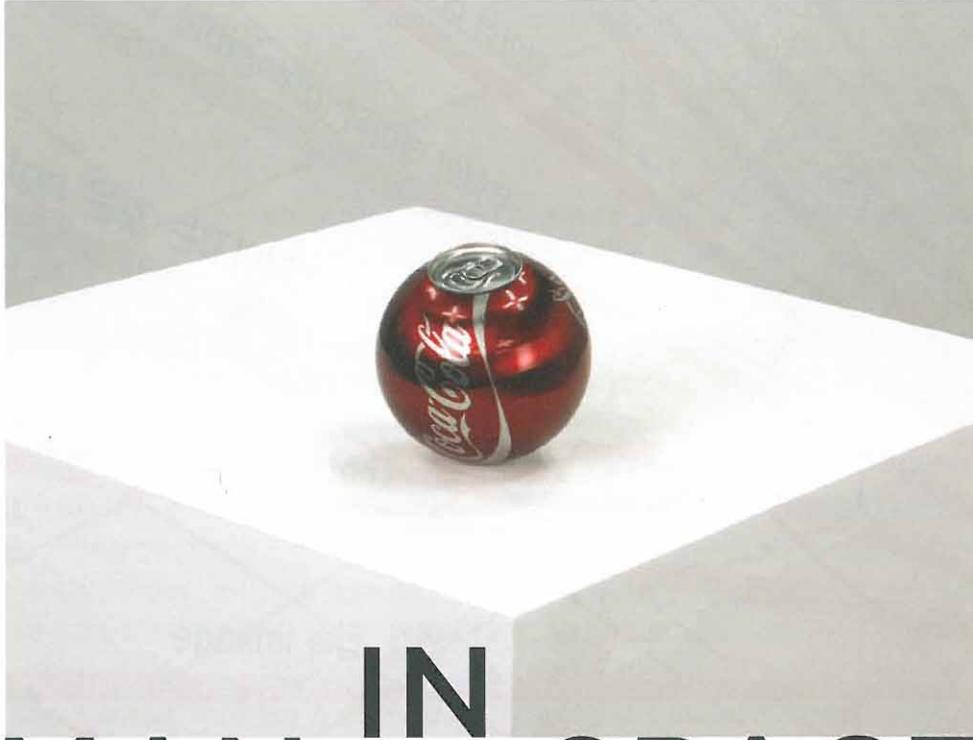
**January 2011**  
**+ NO. 102**



EDITOR : Seo, Jae Woo

PHOTOGRAPHY : Lee, Seung Jun

COOPERATION : Kukjae Gallery, PKM Gallery



Fat Coke, 2009, 12.5 x 12.5 x 12.5(cm), Stainless Steel, Aluminum, Print D Artist and PKM Gallery

# MAN IN SPACE

공간에 선 남자

현대미술은 작품과 공간이 한자리에서 빛난다. 특별한 장소이기에 가능한 작품이 생기고, 아예 공간을 보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작업을 한다. 때마침 서울에서 공간을 이용해 작업을 펼친 두 명의 작가의 전시를 봤다.

독일작가 안젤름 라일리(Anselm Reyle)와 국내작가 이원우의 작품은 모두 공간과 함께 빛났다.



Untitled, 2013, Mixed Media on Canvas, Acrylic Glass, 252 x 201 x 28(cm) Photo: Matthias Kolb



# WHAT ABOUT LOVE

## ANSELM REYLE

국제갤러리 K3관 안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 더러워 보이기도는, SF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언젠가 이런 거리를 걸겠지'라는 막연한 상상. 글썽,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공간 앞에 선다는 건 꽤 흥미로운 경험이다. 이곳은 독일작가 안젤름 라일리의 개인전 〈What about Love〉의 전시장이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강력한 광음이 뇌리에 스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안긴다. 라일리는 서울 인근에서 찾아낸 버려진 공업용 부품과 건축자재, 그리고 베를린스튜디오에서 가져온 부서진 액자와 본인의 네온 작업을 탐처럼 쌓거나 벽에 걸었다. 쌓인 사물은 일상에서는 쓰레기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전시장 안에서는 예술작품처럼 나름의 독자적인 자태를 뽐낸다. 사실, 쓰레기라 치부되는 사물도 나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각 시간을 머금고 있고, 용도가 있다.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가 쓰레기로 인식되지 않은 건, 갤러리라는 공간이 주는 힘도 있겠지만 각각의 사물이 가진 독자성 때문이다. 라일리는 서울과 베를린의 시간과 이야기를 한데 섞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덧칠했다. 관객은 혼재된 기억의 공간에 서는 것이다. "작업을 할 때, 공간을 유심히 살펴요. 가령 그 공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



람이 드나드는지를 살피고 설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제가 주로 쓰는 재료가 아크릴 박스나 거울인데, 이는 반사되어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객은 사물 앞에서 반사된 다른 풍경을 봐요. 이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지요. 반사된 세계는 관객만이 아는 또 다른 시간과 이야기일 테니까요." 결국에 공간 안에 들어선 설치가 작품이라기보다, 공간 전체가 작품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공간에 서본 자만이 갖는 특권일지도 모르겠다.

안젤름 라일리는 아카데미 슈투트가르트와 쾰른에서 수학했다. 라일리는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 미술계가 형성되기를 추구하며 학파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시 미술계의 서류를 벗어나 바넷 뉴먼, 엘스워스 켈리 등의 추상화가들의 작업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세계를 확립해왔다. 2012년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르칸 현대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Arken Prize〉를 수상, 그의 작품이 영구 소장 및 전시됐다. 이 밖에 할스 사치, 프랑수아 피노와 더불어 크리스찬 보로스 컬렉션 등에 소장돼 있고 대표적인 프랑스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과의 협력 작업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